

<부름> 받은 여자들

- 최정희의 「幻の兵士」와 사타 이네코의 「気づかざりき」¹⁾의 ‘응답’

明 恵 英*

(e-mail : m1h00y9@hanmail.net)

目 次

- 1 들어가며
 - 2 1940년대 초반
 - 2.1 후방의 여자들
 - 2.2 어떤 선택
 - 3 두 개의 계절
 - 3.1 ‘들국화’의 침묵
 - 3.2 해자의 ‘버드나무’
 - 4 여자들의 ‘응답’
 - 4.1 ‘연애’에서 挺身, 愛国班으로
 - 4.2 결혼명령
 - 5 나오며
-

1. 들어가며

오늘날 청일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전쟁에서 자행된 일본의 침략적 행위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 정당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식민지 조선에 대해 자행된 수없이 많은 일본정부의 식민지정책은 조선인을 친일파와 민족주의라는 두 색깔로 명암을 나누는데 명분을 제공했다. 특히, 전쟁이 격렬함을

1) 底本；최정희(1941.2), 「幻の兵士」,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2001), 長野印刷. 佐多稲子(1942.7), 「気づかざりき」, 『女流作家叢書』(1943), 全国書房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과 강사, 한일근대 비교문학 전공.

더해가던 1940년대에 행해진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문인들의 전쟁 협력적인 태도는,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선택에 대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정녕 전쟁 협력자로서 낙인찍혀 시대적 폐쇄 상태에 놓여버린 그들(작가)과 소통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철학자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2005)는 『국가와 희생』에서 야크 데리다의 「절대적 희생」이라는 언설을 인용해, ‘신의 소리를 들어 버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예로 들며, ‘우리는 절대적인 희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²⁾고 역설했다. 그의 이러한 언설은 한국과 일본의 전쟁 협력 작가들에 대한 소통의 장을 여는 열쇠라 생각한다.

전쟁협력자이자 1930년대 한국 여성작가의 대표 주자였던 최정희(1912~1990)는, 시인 모운숙, 노천명과 함께, 신문과 잡지에 논설 「군국의 어머니」(한국어, 『三千里』, 1942.1) 외에 여러 편의 논설을 발표했으며, 그 외 소설로는 「환영의 병사(幻の兵士)」(일본어, 『国民総力』, 1941.2)를 비롯해 「静寂記」(일본어, 『文化朝鮮』, 1941.5), 「2月15日の夜」(일본어, 『新時代』, 1942.4), 「여명」(한국어, 『野談』, 1942.5), 「장미의 집」(한국어, 『大同叢』, 1942.7), 「野菊抄」(일본어, 『国民文学』, 1942.11) 등 일제의 전쟁 동원에 협력적인 작품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발표했다.

이러한 작품은 일단 일본의 전쟁협력 작품으로 분류되지만,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들 작품에는 여성작가의 시점이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최정희는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과의 로맨틱 러브를 통해 내선일체를 구현한다고 하는 단편소설 「환영의 병사(幻の兵士)」(일본어, 『国民総力』, 1941.2)를 발표했다.

한편 사타 이네코(佐多稲子)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활동하였으나, 『잇꽃(くれなゐ)』을 계기로 전향하여 전쟁협력 작품을 다수 발표하기에 이른다. 전시하의 사타 이네코를 떠올릴 때, 전쟁 위문단으로서의 행적이나 이에 동반해 쓰인 전쟁 르포나 집필 등에서 그녀의 전쟁협력적인 자세의 흔적은 무수히 발견된다.³⁾ 본 논문에서는 그녀의 그런 행적까지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앞서 밝혔듯이 그들의 작품을 세밀히 분석하여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편 「둔감(気づかざりき)」(1942.7)은 종래의 그러한 사타 이네코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그러나 사타가 여성으

2)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2005), 이복 역(2008),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p.258

3) 사타는 당시 조선 총독부의 초대로 1940년 6월부터 10일간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다. 1940년 6월 16일 동경을 출발해 18일 부산에 도착. 경성, 평양, 경주 등을 관광하고 28일 귀국했다. (長谷川啓(2000), 「戦争と女性」, 『昭和文学研究』, p.162)

로서의 관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 아키코(昭子)에게 맞선을 권하는 야마모토(山本)라는 남자의 묘사나, 맞선 상대가 군인인 것을 알고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아키코, 여기에 아키코의 언니 마사코(正子)가 출산한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인 점’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幻の兵士」와 「気づかざりき」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전쟁에 협력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선택의 갈림길에 처한 나약한 인간의 참모습이 숨어 있다. 당시의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후방소설 혹은 국책소설이라고 비판받는 이러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오버랩 되는 것은 아닐까? 두 작품이야말로, 전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감성의 레벨까지 재편된 국민의 실태가 수면으로 떠올려진 소설이라고 생각된다. 「幻の兵士」와 「気づかざりき」에는 연애라는 장치를 통해 ‘개인’이 ‘짝(=연인)’으로 발전하고 그 연인 중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비약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소설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 싶다. 본 고에서는 작품의 행간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여주인공들의 심적 ‘그늘’을 읽어 내고, 그녀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장치한 작가 최정희와 사타 이네코의 전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그녀들은 왜 출정한 병사와의 결혼을 결심하는지, 또, 일본 병사와 사랑을 나누며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에 동화해 가는지를 고찰하겠다.

2. 1940년대 초반

2.1 후방의 여자들

전쟁에 광분해있던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여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전시동원을 꾀하였다. 1938년 4월,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목적으로 한 <국가총동원법>을 발령하기에 이른다. 1939년에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발표해, 의사·약제사·간호사 등 여성 의료인들을 우선 동원하였다. 1941년에는 남성 14세 이상 40세 미만, 미혼 여성 14세 이상 25세 미만에게 연간 30일 이내의 근로 봉사를 부과해, 직장·지역·학교별로 근로보국대를 결성시켰다. 또한 여성에게는 인구증가 정책이 차례차례로 하달·시행 되었다. 조혼 다산이 장려되어 상이군인의 아내가 되는 것, 만주 개척 이민의 청년의 아내, 대륙의 신부가 되는 것 등이 장려되었다. 1938년 1월에는 후생성이 설치되어 인공증식 정책과 이와 관련된 국민체력향상 정책이 수립되어 보건부(保健婦) 육성에 박차가 가해졌다. 1940년 5월, 국

민우생법이 공포되어 건강치 못한 자에 대해서는 우생수술에 의해 생식기능을 못하도록 해 건강한 자의 증가를 피하게 되었다. 또한 후생성은 동년 다산보국 사상(多産保国思想)에 대한 지도를 주창해,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가정을 우량 다산가정으로써 표창했다. 1941년 1월, 일본정부는 ‘인구정책 확립 요강’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여 조혼화와 출산장려책을 만들었다. 이렇듯 전시하의 모성정책을 배경으로, 문학 영역에서는 모성문학이 융성했다.⁴⁾

한편 조선에서는 1939년의 <국민징병령>과 1943년의 <조선징병령>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 여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선전 문구는 ‘여성도 국민’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의 문학자 모윤숙은 ‘이 대동아전쟁의 승패는 우리 여성들에게 달렸습니다. (중략) 모두가 대일본 제국의 평등한 국민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⁵⁾고 호소했다.

여기서 조선의 여성이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기혼 여성은 출산이나 현모의 역할을, 미혼 여성은 근로나 정신대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그녀들을 지도·계몽하는 역할을 해내는 여성이 되는 것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자 여성정책은 확대 강화되어 갔으며, 특히 국가 규모의 범죄적인 여성정책은 군위안부의 대량 동원이었다. 군위안소 설치의 본격화는 중일전쟁 이후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 개전 후에 갑자기 불어나 군 관리 하에 운영되었다. 위안부는 주둔지·점령지에 배치되어 이들 중에는 일본의 기생·창기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을 차지했던 조선인 여성의 경우, 속아서 오거나 납치되어 끌려와 병사전문 성적노예로 전락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지 여성은 국가의 이른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본군에게 육체를 제공해야만 했으며,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우방군의 위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 여성의 순결함을 지키게 되므로,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정절 이데올로기의 수호자가 되기도 하였다.⁶⁾

한편 1939년 공포된 <국민징병령>은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와 동시에, 당시의 여학생들은 군수공장에 동원되어 급기야 학교는 후방전선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여학생들은 정신대로서 위문편지쓰기, 위문대 만들기, 군복 빨기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1941년경부터 조선에서는 양가의 여성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을 붙여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에 기혼자라면 끌려가지 아니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16~17세의 소녀들을 서둘러 시집 보내는 조혼이 다시 성행하였다.⁷⁾

4) 岩淵宏子(2005), 『昭和初年代から敗戦までの女性文学』, 『日本女性文学史』, ミネルヴァ書房, pp.176~177

5) 모윤숙(1942), 『여성도 전사다』, 『三千里』, p.100

6) 전경옥의 3인공저(2004), 『한국여성정치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128

이처럼 일본과 조선 여성에게 국가로부터 요구되었던 것은 일견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여성에게는 모성애, 조선 여성에게는 창녀라는 식으로 그 중점이 달리 적용되었다. 모성동원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다산 장려가, 조선에서는 자식을 희생한다고 하는 모성파괴가 강조⁸⁾되었던 것이다.

2.2 어떤 선택

1941년 2월, 최정희는 전쟁협력 작품이라고 분류되는 「幻の兵士」를 발표했으며, 뒤이어 1942년 11월에는 「들국화抄(野菊抄)」를 펴냈다. 이들 두 작품은 모두 일본어로 발표되었다. 1941년이라고 하면, 12월에는 일본 정부에 의해 언론·출판·집회·결사 임시단속법이 공포되어, 일본과 한국의 문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여 저작 활동에도 강도 높은 제약이 가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지적된바 있다. 전쟁이 격렬함을 더해가는 가운데, 조선의 지식인이나 엘리트 문인들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의 하나인 내선일체라는 슬로건이 주장된 1930년대의 후반이 되면, 식민국가로서의 일본과 피식민 국가로서의 조선이라는 입장은 분명하게 둘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반응 또한 서로의 입장에 따라 양분되었다.

식민지에 대해 억압과 차별화 정책을 취해 온 일본은, 전쟁이 지속되고 확대되면서 징병령을 핵심에 두고 동원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동화정책이 시행되었다. 식민국가에 대한 조선민족의 강제적, 자발적 동원을 목표로 하여 일체는 민족정체성을 부정하고 전원 국가로 귀속할 것을 요구했다. 회유와 협박이 병행되는 동화정책이었다. 이는 황국신민이나 조선민족이나 혹은 식민주의에 협력이나 저항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이었다. 그것은 단지 명분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각 개인이 그 이전에 추구해 온 해방 지향에 따라 미래가 정해지는 지점이기도 했다. 독립될 가망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철저한 동화를 행해서 평등한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 당시 조선 문인들이 생각하는 내선일체론의 논리였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고투에 지치고 절망한 나머지 차라리 평등을 약속하는 전체주의 국가에 귀속하여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 그들 전체주의의 논리였다. 또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침략과 멸시에 분노하여, 동양이 단결하여 서양을 넘어선다는 것이 대동아 공영권론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일제가 벌인 ‘성진’에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현실에서 실천되는 것이었다.⁹⁾

7) 전경옥의 3인공저(2004), p.121~125

8) 河かおる(2001), 「総力戦下の朝鮮女性」, 『歴史論評』, 校倉書房, p.612

9) 이상경(2003), 「식민지 여성과 민족의 문제—일제 파시즘의 최정희와 임순득」, 『실천문

최정희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피해 갈수는 없었다. 그녀는 교육지책으로 ‘황국신민’과 ‘협력’을 선택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소설은 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최정희는 1941년의 「幻の兵士」를 필두로 앞서 제시한 전쟁협력 작품을 차례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한편 사타 이네코는 1934년 2월, 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 해산 이후 조직을 잃은 상황 하에서의 남편과의 부부 관계의 황폐가 파시즘에 대한 저항 의지를 점차 희미하게 하여 전향에 대한 명확한 자각 없이 점차적으로 전시체제에 말려들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 『잇꽃(くれなゐ)』을 계기로 전향했다고 보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향 후 사타는 1940년 경부터 전쟁의 정세에 타협한 작품을 쓰게 된다. 1942년에는 군 당국의 요구에 응해 중국·남방으로 두 차례나 전장 위문을 갔다. 이 중 5~6월에 방문한 중국에서 전쟁의 참상을 본 것이 그때까지 전쟁체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사타의 사고를 굴절시켰다고 한다.

「気づかざりき」는 사타의 그러한 변모의 자취를 특히 현저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자리매김 되어있다.¹⁰⁾ 제2차 세계대전 돌입 이후로는 주로 전장 위문을 수행해, 시국영합 작가로 일컬어지는 한편, 대량으로 쓰인 중간소설에서는 전쟁미망이나 이혼한 여성, 전쟁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젊은 남자 등 규범에 반하는 사람들을 조명하여 작품을 썼다.¹¹⁾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의 출판 사정이 전쟁 선전 소설 이외의 소설 발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1942년 5월 시점에서는 전쟁 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사소설이나 개인적인 애정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소설조차 당국의 지도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¹²⁾

이처럼 양국 작가들은 나라의 요청에 의해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일본과 조선 문인들의 <선택>을 다카하시(高橋, 2004)의 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테리다에 따르면, 신의 말씀에 따라 이삭에게 칼을 휘두르는 아브라함의 몸짓에는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여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이 단 한순간도 도망칠 수 없는 ‘절대적 희생’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타자(=신)에게 충실하려 한다면 다른 타자(=이삭)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타자를, 다른 타자들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어떤 타자의 부름이나 요구, 책무는 고사하고 사랑에 대해서마저도 응할 수가 없다.” 테리다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절대

학』, p.56

10) 小林恵美子(2003), 『気づかざりき』-生贄にされる<女たち>-』, 『日本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第9号』, p.42

11) 岩淵宏子(2005), 앞의 논문, p.190

12) 小林恵美子(2003), 앞의 논문, p.50

적 희생의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지를 모른다.”는 말이다. (중략) 어떤 타자에 대한 책임이 또 다른 타자에 대한 무책임이 되고, 또 다른 타자에게 죽음을 부과하는 절대적 희생의 패러독스는 전쟁에서 극대화 된다. (중략) 어떤 타자들의 희생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정치적·윤리적 결정이 다른 타자들의 희생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아포리아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중략) ‘희생’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 국가가 요구한 죽음이 ‘희생’으로 정당화되고 용인된다는 인식이 있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고 책임 지려 하기 때문이다. 모든 희생의 폐기는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향한 욕망 없이는 책임 있는 결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모든 희생의 폐기”란 특이한 타자들의 부름에 보편적으로 응답하는 일 바로 그것이다.¹³⁾

인용에 의하면, 신의 소리(=일본 정부의 의향)를 들어 버린 아브라함(=양국의 지식인)은 그 신의 ‘부름’에 ‘전쟁협력’이라는 형태로 ‘응답’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선택은 ‘보편적인 응답’이었을까? 바로 이점이 문제이며 검증되어야 할 항목이다. 이를 위해 한일 두 작품 최정희의 「幻の兵士」와 사타 이네코의 「気づかざりき」를 통해 그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두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한 후 부분적 고찰을 더해 감으로써 식민자 대 피식민자라는 구도가 밝혀지고, 입장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작품이 쓰였다는 작자의 전략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두 개의 계절

3.1 <들국화>의 침묵

「幻の兵士」의 히로인 영순은 도쿄의 모 여자대학 2학년생이다. 그녀는 유학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일 년 전 일시 귀국해 요양 중이다. 이런 영순이 병약한 몸을 이끌고 평상시라면 갈 엄두도 못 낼 산행을 결심한 것은 아침에 내린 서리가 “차가움”과 동시에 “아픔”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윽고 산에 오른 영순은 “애처로운 모습의 들국화”를 만나게 되고, 들국화의 “차가운 침묵”을 남의 일 같지 않게 감지한다. 이러한 소설 서두 장면은 언뜻 보아서는 감상적으로 읽어 넘기기 쉬운 묘사이거나, 영순이 “서리 맞아 애처로운 들국화”를 가엽이 여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산의 나무들은 색도 냄새도 이미 퇴색해, 애처로운 모습의 들국화는 차가운 침

13) 高橋哲哉(2005), 앞의 논문, pp.258~263

목을 끊임없이 지키고 있었다. 영순은 소생시킬 방법이 없는 한없이 쇠약한 운명에 잠겨, 들국화와 같이 차가운 침묵을 지키면서, 산 너머를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었다.¹⁴⁾ (『幻の兵士』, p.291)

영순이 본 조선의 산에 있는 수목들은 “색”도 “냄새”도 퇴색해 버린 채, 서리를 뒤집어 쓴 “들국화” 역시 계속해서 “차가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영순은 이런 들국화의 모습을 가련하게 생각하며, “소생시킬 방법이 없는 한없이 쇠약한 운명”을 가진 들국화 역시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오로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들국화의 입장을 자신의 모습과 결부시킨다. 그러나 이상의 표현들은 그저 ‘몸이 약하다’는 영순을 표상하기에는 언어 선택에 있어서 어딘가 무겁고 어두운 감이 든다. 소설 속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적기는 하지만 무언가 작자의 의도가 복선화되어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련한 들국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국화가 천황가의 문장인 것을 생각한다면, 들에 핀 들국화는 ‘조선’을 가리키는 메타포는 아닐까? 그리고 ‘영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조선의 은유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또한 ‘들국화’는 『환영의 병사(幻の兵士)』의 약 2년 후에 쓰인 단편 일본어 소설 『들국화抄(野菊抄)』에 재차 등장한다. 1942년 11월 『国民文学』에 일본어로 발표된 『野菊抄』는 일본인 병사의 입을 빌려 조선의 어머니들에게 ‘군국의 어머니’상을 계몽하게 한다는, 이 또한 전쟁협력 소설이다. 『野菊抄』의 여주인공 ‘나’는 처자가 있는 남자와 연애를 해 사내아이를 낳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엘리트 여성으로 12년간 혼자서 아이를 길러왔다. 다음은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시국 교육차 ‘지원병 훈련소’를 견학해 ‘군인 정신’을 배우게 한 다음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설의 라스트 신이다.

들국화가 햇빛에 물들어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닌 이상한 색을 발하지만 예뻐니다.¹⁵⁾ (『野菊抄』, p.145)

“작고 가련한 꽃이구나. 당신과 아주 닮았어!”¹⁶⁾ (『野菊抄』, p.146)

‘나’가 논길에서 찾아낸 들국화는 빛이 바래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닌 “이상한 색”을 띠고 있다. ‘나’는 옛날을 회상하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을 들국화에 비유해 “가련”하다고 했던 추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아들 승일에게 들

14) 山の樹々は色も匂いもうせ、衰れな姿の野菊は冷たいだんまりをつづけていた。英順は蘇らず術のない衰へ果てた運命にひたり、野菊のような冷たいだんまりを守りながら、山の向うを永いこと見つめてゐた。

15) 野菊が日に染まって赤でもなし、紫でもない妙な色を呈してきれいです。

16) 「小さい、可憐な花だね。あなたによく似てる…。」

국화의 존재에 대해 가르쳐 준다. 승일은 들국화를 꺾어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조르지만, ‘나’는 “들국화는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 버리는 가련한 꽃”이라며 채취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일은 결국 어머니를 졸라 허락을 받아내고, 이윽고 들국화를 몇 그루 캐서 집으로 가져간다. 들국화는 옮겨 심어진 후에도 여전히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닌 이상한 색”을 발한다. 이에 아들 승일은 “전쟁에 나가 제가 죽더라도 이 꽃을 봐서 울지 말아요.”하며 자신의 모습을 들국화에 이입시킨다. 이에 ‘나’는 “울고 싶어서 승일이 한 말을 떠올리며 울지 않도록 노력할게.”하고 대답한다. 그러자 들국화는 마치 이 두 모자를 격려라도 하듯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거린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나’의 각오로 매듭지어진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승일을 길렀던 것처럼 승일을 위해서 들국화를 아름다운 꽃, 강한 꽃으로 기르기로 하겠다. 그것이 나에게 대한, 또 당신에 대한 복수가 될 테니까요.¹⁷⁾ (「野菊抄」, p.146)

‘나’는 아들 승일을 기르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들국화를 ‘아름답고’ ‘강하게’ 키울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나를 배신한 남자에 대해서도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들국화는 가련한 ‘나’로부터 전쟁에서 죽을 ‘아들’의 표상으로 그 역할이 변모한다.

그렇다면 과연 작가 최정희가 들국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소설 작품에서 묘사되는 들국화의 이미지를 정리하면,

- ①가을 들판에 피는 작고 소박한 꽃
- ②서리가 내리면 시들어 버리는 가련하고 외로운 꽃
- ③빨강도 보라도 아닌 이상한 색을 띠지만 미워할 수 없는 꽃이다.

여기서 우선 들국화가 피는 계절이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에 찬 봄도 여름도 아닌 어쩐지 쓸쓸한 서리 내리는 ‘가을’이라는 점, 또한 꽃이 작고 소박하지만 아들을 대신하여 ‘강하고’ ‘아름답게’ 기르고 싶은 것이 ‘나’의 희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들국화는 당시의 조선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를 배신한 아이의 아버지는 조선을 지켜내지 못한 남자(=정치가)들의 표상이며, ‘나’는 가련한 들국화인 조선의 여자로서 그런 무책임한 조선의 남자들을 추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7)もう私は何にも考えず勝一を育てると同じく勝一のために野菊を美しい花、強い花に育てることに致しましょう。それがわたしに対してのあなたに対しての復讐になりましょうから。

3.2 해자의 ‘버드나무’

1942년 7월에 발표된 소설 「氣づかざりき」의 서두는 ‘소박한 혼담’이야기로 시작된다. 소설 초반부터 ‘모성 만들기’ 전략이 베어나는 글쓰기이다. 혼담은 다름 아닌, 히로인 아키코의 이야기로, 그녀가 회사 동료 야마모토에게 그의 친구를 소개받는 시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여기서 자칫 조연으로 간주되어 무시될 야마모토라는 인물에 주목해 날카로운 평론을 발표한 연구자가 고바야시 에미코(小林恵美子)이다. 고바야시(2003)는, ‘야마모토라는 인물설정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은 후방 국민으로서, 병사들의 노고보다 더한 고통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과격한 숭배가, 젊은 여성의 인생을 그들에게 바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¹⁸⁾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처럼 야마모토라는 인물은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그에 대한 서두의 묘사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 회사만의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사원들의 형색과는 동떨어진 야마모토의 웬지 장사꾼 같은 언행은 물에 기름을 떨어뜨린 것처럼 친숙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의 기모노를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양복으로 바뀌 입은 것 같은 차림으로, 게다가 야마모토는 몸집까지도 작았다. 그보다도 다리가 짧은 것 같은, 거기에 신체에 어울리지 않는 양복을 입고 있는 듯 웬지 우스꽝스런 느낌을 주었다.¹⁹⁾ (「氣づかざりき」, p.4)

여기에서 야마모토의 “일본의 기모노를 입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양복으로 바뀌 입은” 듯한 모습이 묘사된다. 그러나 양복이 어설피 몸에 맞지 않아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작가는 꼬집는다. 다시 말해 “일본의 기모노”를 서양식 양복으로 바뀌 입은 야마모토가 외관은 서양식이지만 사고는 아직도 어엿한 일본식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언제나 싱글벙글 거리면서 상대방을 방심하게 해 놓고, 내심 날카로운 관리자의 시선으로 신부감을 물색하고 있다.

야마모토도 평소 아키코의 성실한 근무 실태나 영리함, 상냥함을 잘 알고 있었으며, 가끔 그 상냥한 얼굴로 감동한 듯 말을 걸 때가 있었다.²⁰⁾ (「氣づかざりき」, p.5)

18) 小林恵美子(2003), 앞의 논문, p.44

19) それにこの会社などの、どこかあく抜けのした社員の型から見れば、山本の何だか商人みtainな物腰は、水に油をおとしたやうになじまなかつた。今まで和服をきてゐた人が急に洋服をきたやうな恰好で、第一それに山本は小柄だつた。と、いふよりは脚が短かいといふやうな、それに身体のなじみのない洋服をきてゐるやうなので、何かユーモラスな感じであつた。

20) 山本も日ごろから昭子の勤めぶりの真面目さや、利口さや、優しさを知つてゐて、ときどきそのにこやかな顔で感じ入つたやうに言ふことがあつた。

아키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마모토의 “정실” “영리함” “상냥함”이라는 세 항목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확실히 그는 일본정부의 국책수행 임무를 띠고 급조된 캐릭터인 것이다. 이렇듯 야마모토 관리의 심사를 거친 아키코는 점심 휴식 시간에 그에게 회사 옥상으로 불려나간다.

옥상의 구석에서 아키코는 나날이 진해지는 해자 주변 버드나무의 푸름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야마모토는 짧은 다리가 더 짧게 보이는 걸음걸이로 양손을 뒤쪽 허리춤에 잡은 모습으로 다가왔다.²¹⁾ (「気づかざり」, p.6)

옥상에 나타난 야마모토는 “양손을 뒤쪽 허리춤”에 낀 자세이다. 이런 자세는 그야말로 거드름을 잔뜩 피우고 부하에게 임무를 하달할 때의 상사의 태도로 아키코보다 입사 후배인 야마모토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그런 태도로 옥상에서 아키코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꺼낸다. 이 후 아키코는 평소에 친절했던 야마모토의 소개이므로 의심 없이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된다.

여기서 아키코에게 결혼의 임무가 내려진 계절은 초여름 “버드나무가 푸르른” 활동적인 계절이다. 또한 이 날 아키코는 우연찮게 “녹색 춘추복 코트”를 입고 있다. 이러한 소설 속의 계절에 대한 설정은 식민지하 작가가 쓴 「幻の兵士」나 「野菊抄」의 “색도 냄새도 퇴색”한 ‘가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이다. 이러한 설정에서조차, 같은 여성작가의 소설이라 할지라도 식민자 대 피식민자의 입장은 분명히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

사타는 적어도 전쟁협력 소설 서두에 ‘야마모토(=일본 정부의 명령자)’에 의해 아키코(=일본 여성)는 일본 정부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 <응답(=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창작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여자들의 ‘응답’

4.1 ‘연애’에서 挺身, 愛国班으로

「幻の兵士」의 영순은 어느 초가을 아침, 산책 겸해서 올라 간 금화산에서 야마모토라는 일본인 병사를 만나게 된다. 그는 철도 경비임무를 맡아 금화산 기슭에 막사를 치고 4명의 병사들과 생활하고 있다. 다음은 그를 처음으로 만났

21) 屋上の端に昭子が立って、一日増しに濃くなるお濠ばたの柳の緑にみとれてゐたとき、山本は、短かい脚を曲げるのでよけい短く見えるやうな歩きつきで、両手は背のほうへ廻して組んだ恰好で近寄ってきた。

을 때의 영순의 소감이다.

어깨가 떡 벌어진 체구, 콧날이 선 반듯한 얼굴, 완전 무장은 하지 않았지만 영순은 그의 근엄함에 놀려 황급히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중략) 그는 영순의 주저함에 그렇게 말하고 생긋 웃어보였다. 웃을 때의 치열이나 눈 속으로 영순은 그만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²²⁾ (『幻の兵士』, p.291)

영순은 야마모토와의 첫 대면에서 그의 얼굴 생김새나 품격, 그리고 군인다운 “근엄함”에 놀려 시선조차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 게다가 그의 웃는 모습과 눈동자를 보자 “빨려 들어가는 듯” 한눈에 반하고 만다. 이 때 영순은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 산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마저도 그에게 들켜버려 “수줍음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발부리로 서리에 맞아 상해버린 마른풀을 힘껏 발로 밟아”버리는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영순의 행동은 소설 서두에서 보인 “색도 향기도 퇴색한” 이라고 서리 맞은 풀들을 측은히 여기던 태도에서 일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때부터 사랑에 빠져버린 영순의 눈에는, 자신의 美感에 맞는 야마모토밖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 아울러 야마모토 역시 군인이지만 때로는 감상에 젖을 때가 있다고 하며, 간접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표하자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달리 반짝”이기 시작한다.

물론, 군인은 전쟁에 열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국을 훌륭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신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를 모르는 사람에게 동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동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낭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낭만을 퇴폐적 정신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대에도 낭만은 힘이요 정열이며 진실이고 생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²³⁾ (『幻の兵士』, p.291)

위의 인용은 야마모토가 영순의 감정을 눈치 채고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애관을 피력하는 장면이다. 야마모토는 연애감정을 “자연의 신비”이며 “동경”이라고 말한다. 또한 1940년대인 지금에도 연애는 “힘, 정열, 진실”이며, “생명”의 연소라고 단언한다. 이는 참으로 1920년대의 생명사상에 기초한 로맨틱 러브의 연애관이 지속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영순 역시 이런 야마모토의 시선을 “열정적”으로 느끼며 받아들인다. 결국 영

22) 肩幅の広いがっちりした体軀、鼻すじの通った整った顔、武装はしてゐなかつたが英順はそのいかめしきにおされて周章でて視線をそらした。(中略) 彼は英順の躊躇いにこう云つてにっこり笑つて見せた。笑つてゐる齒なみやその眼の中に英順は我知らず引き込まれてしまひさうであつた。

23) 無論、兵隊は戦争することに熱中します。どうして祖国を立派に守り通すか、そればかり考えるのが兵隊です。併し、だからと云つて自然の神秘を愛さないわけでもありません。神秘を知らないものに憧れのある筈がないのです。憧れないものにして浪漫を望み得ましよう。浪漫を退廃的精神の産物だと非難する時代は過ぎ去つたんです。現代に於ては浪漫は力で、熱で、真実で、生命だと僕は思います。

순은 연애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야마모토의 ‘일본인의 군인 정신’도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날을 계기로 영순은 그가 머물고 있는 막사에 매일 같이 드나든다. 막사에는 야마모토를 비롯해 모두 다섯 명의 병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 중 한사람은 조선인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창시개명을 하고 있어 시대를 대변한다. 영순은 막사에서 병사들의 주문에 따라 ‘挺身’에 주력한다.

때로는 야마모토 병사 곁에서 그가 읽어주는 내용에 무척대고 감격하거나 흥분하거나하고, 때로는 농림 기수인 가와이 상등병의 농림 관련 이야기를 듣기도하고, 또 키가 큰 시미즈 병사에게 소리 죽여 ‘아리랑’을 가르치거나 하고, 또 때로는 원시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얼굴이 검은 병사의 무용담을 들어주기도 했다.²⁴⁾ (「幻の兵士」, p.293)

다만, 전장에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²⁵⁾ (「幻の兵士」, p.293)

영순은 본격적으로 병사들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혼신의 봉사를 한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전장으로 불려나갈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영순은 스스로가 ‘挺身’의 마음가짐이나 정당성을, 조선 여성들에게 계몽·선동하고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조선에 있어서 당시의 <挺身隊>는, 미혼 여성을 군인들의 수발을 위해 소집한 집단이다. 이러한 <挺身隊>는 1930년 말부터는 공장 노동뿐만 아니라 농업, 보도,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동원되었으며, 법령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여성동원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²⁶⁾ 1938년 <학도근로보국대실기요강>에 의해 학생들이 동원되어 남자는 토목공사에, 여학생은 신사청소와 군용품 봉제작업에 동원되었다. 또한 여학생은 학교에서 노동을 하거나 공장에 동원되었으며, 그밖에 위문문 쓰기, 위문대 만들기, 군복 빨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민징용령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자, 당시의 고등 여학생은 군수공장에 동원되었으며, 학교는 후방 전선의 역할을 맡아 간호사나 군의 숙소가 되기도 했다.²⁷⁾

24) 時には山本兵士のそばで、彼が読んできかせる文章に無暗と感激したり、興奮したり、時には農林技手であった川井上等兵の農林の話聞いてゐたり、または背の高い清水兵士に声を小さくして「アリラン」を教えたり、時には遠視鏡の講談を聞き、時には黒い顔の兵士の手柄話の相手になったりした。

25) ただ、戦場へ何時出されるかわからない彼らのため一時間でもいい、彼等を楽しませ、慰めるのになんてためらふことがあらう、と思ふのであった。

26) 전경옥외 3인(2004) 앞의 책, p.128

27) 전경옥외 3인(2004) 앞의 책, p.125

병사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挺身>한 영순은 야마모토에게 희망적인 말을 듣는다.

영순은 수첩을 받아 말없이 「김영순」이라고 썼다. (야마모토) “예쁜 글씨군요, 실례의 말이지만 당신과 아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자는 살아있어요, 색도, 향기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²⁸⁾ (『幻の兵士』, p.293)

이쯤에서 다시 소설의 서두 부분을 떠올려 보면, 산에 올라온 영순은 “나무들이 색도 향기도 퇴색해” 버린 “애처로운 모습”이라며 절망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소설 중반부에 와서 일본인의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병사 야마모토에게, 영순이 쓴 한글 문자가 조선의 가옥을 닮았고 “색도 있고 향기”도 있으며 “살아 있다”는 평가를 받아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제 즉 연애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생명력의 연소이므로, 영순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받은 평가일 것이다. 야마모토의 이 말에 영순은 “코끝이 찌릿 할 만큼” 감격스러워 한다. 결국 연애라는 장치에 의해 한일은 하나가 되고, 야마모토(=일본)에 의해 영순(=조선)은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아 소생한다는 결론이다. 야마모토의 말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게 연애로 무장한 영순은 이 전쟁의 목적이 “동양평화”에 있다고 야마모토가 말하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내면화한다.

당신이 내가 쓴 한글을 보고 조선 전체와 중국까지, 즉 동양 전체를 느꼈던 것처럼 당신과 사귀게 되어 나도 이 전쟁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되고, 어디선가 군인들을 만나면 당신을 만난 것처럼 기쁨을 느낍니다.²⁹⁾ (『幻の兵士』, p.296)

영순은 개인으로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야마모토를 사랑하여 ‘짝’이 됨으로써 “전쟁이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본 전체를 받아들일게 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구도와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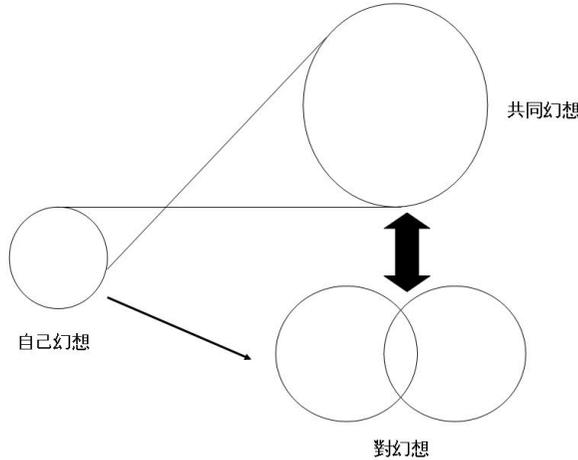
우에노(2006)는 이러한 이성애 구도를, 이른바 ‘개인’에서 ‘짝’으로 飛躍해 최종적으로 ‘공동’으로 이동한다는 논리로 설명하였다.

짝 환상은 무한히 서로 고립하려한다. 이 배타성은 공동 환상에서 볼 때 어려운 문제다. 성이라는 무법지대. 공동체는 짝을 두려워하고 짝을 소외시키려 한

28) 英順は手帳を受けとり、だまって「 김영순 」と書いた。(山本に)「きれいな字ですね、失礼ですがあなたによくいてるやうな気がする。此の字は、生きてゐますよ、色も、匂もあるやうな気がする。

29) あなたが私の書いて上げた諺文から朝鮮全体と、支那まで、即ち東洋全体をお感じになったと同じく、あなたと知り合ったために、私も戦争が自分のことのように思へて、どこかで兵隊に逢へばあなたに逢へたやうに嬉しがってしまふのでございます。

다. (중략) 개인 환상에서 짝 환상으로 이동하려면 비약에 의할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사람은 자아의 변용을-자아의 해체와 재편이라고



<그림 1>

‘국가’나 ‘사회’가 중국에는 ‘자아’라고 하는 것조차도 환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한 것, 둘째로 ‘집단과 개인’이라는 전통적인 2항 대립 도식에 ‘짝’이라는 독립된 제3항을 자각적으로 반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시모토는 자기 환상과 공동환상은 ‘역립(逆立)’이 가능하지만 흔히 <자기 환상>은 <공동 환상>에 휩쓸려 흡수된다. 그에 대한 제동 장치가 자기 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발견은 군국 소년이었던 요시모토 자신의 전쟁체험이 통환을 담아 투영되어 있다. 짝 환상은 공동 환상에 대항하며 무한히 멀어지려 한다. 좀 더 비근한 예로 정치와 성은 양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 환상·개인 환상·짝 환상>이 각각 ‘환상’인 것은 그것들이 다만 의식 본연의 자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환상과 공동환상이란 의식구조가 동형이니까, 간단히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자기의의식의 변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짝 환상은 다르다. 자기 환상은 탈 중심화를 재촉당해 짝 환상은 복 중심화 한 후 안정된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한 번 구조를 변용한 자기 환상은, 공동 환상으로부터의 어택(attack)에 강한 저항력을 보인다. 사람들은 짝 환상과 공동 환상이라는 각각의 세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양자 간을 왕복하는 것일 뿐

하는 단절과 고통 가득 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³⁰⁾

우에노는 <짝 환상론>에서, 요시모토(吉本)의 <자기 환상·공동 환상·짝 환상>³¹⁾이라는 세 가지의 개념을 들어 설명하였다.

요시모토(1968)의 이 개념이 획기적이었던 이유로, 첫째로

30) 上野千鶴子(2006), 『女の快樂』, 勁草出版社, pp.7~8

31) 吉本隆明(1968), 『共同幻想論』, 河出書房, p.100

들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³²⁾

즉 야마모토가 천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자기 환상’에서 ‘공동 환상’으로의 변용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영순과 야마모토가 연인 관계가 되면 ‘짝 환상’이 형성되므로 ‘공동 환상’으로의 변용은 용의하지 않고 단순히 ‘왕복’만이 허락된다. 아울러 영순은 야마모토에게 반하지만, 야마모토는 다만 “한글을 위하게 되면 영순씨와 좀 더 사이가 가까워질 것 같다.”는 정도의 관심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야마모토는 이미 ‘공동 환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장에서 천황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죽음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성스러운 의무”가 된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순은 어떨까? 그녀는 야마모토가 전장으로 이동한 후에도, 철거된 병사들 막사 터를 맴돌며 매일 같이 와서 “난로가 있었던 자리를 언제까지나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그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따라서 영순이 진심으로 야마모토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진정으로 사랑한 야마모토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영순이 “전쟁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은 될지 몰라도 이 또한 단순한 ‘왕복’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어디선가 군인을 만나면 당신을 만난 것처럼 기쁘다”는 것은 그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결국 영순은 야마모토의 전사 통지를 받게 되고, 아이들이 부르는 군가에도 귀를 막고 슬픔에 젖어 울부짖는다. 영순이 야마모토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전의 막사 터에 나가 울고 있을 때 돌연 야마모토의 환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영순을 위로하기는커녕 변함없이 ‘대동아공영권’을 역설하며 영순의 계몽에 열을 올릴 뿐이다.

「幻の兵士」는 전쟁 협력적 작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소설이지만, 이렇듯 글의 행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작가 최정희는 적어도 ‘나라(일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연애라는 장치를 이용해 일본의 전쟁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최정희의 또 하나의 전쟁협력 작품에 일본어로 쓰인 「2월 15일 밤(2月15日の夜)」(『新時代』, 1942.4)이 있다. 소설속의 히로인 선주는 도쿄 유학 시절에 알게 된 남준과 연애 1년, 결혼 2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한 그녀가 돌연 ‘애국 반장’이 되겠다고 하자 남편은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본업”이라며 반대한다. 이에 선주는 “지금은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고만 있는 보헤미안적인 여자보다, 어떻게 저 하늘을 지킬까 하고 생각하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여자에 대한 통념을 바꾸도록 설득한다. 이러한 설정 또한 당시의 시대상황을

32) 上野千鶴子(2006), 『女という快樂』, 勁草書房, pp.3~6

반영하여 역사를 증언해주는 역할을 소설로써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제는 조선의 황국 신민화와 내선일체를 완성시키기 위해 만든 ‘총력연맹’ 최하부에 실천 운동체로서 ‘愛国班’을 조직했다. 愛国班은 하나의 반이 10호로 구성되어 있었다.³³⁾ 이정민(2002)에 의하면 ‘愛国班은 반상회를 통해서 도시민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식인의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³⁴⁾고 쓰고 있어, 소설 「2月15日の夜」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베이스로 쓰인 작품이며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4.2 결혼명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気づかざりき」의 히로인 아키코는 야마모토라는 남자에 의해 “성실” “영리함” “상냥함”, 이 세 항목에 합격해 赤紙(=소집 영장)와 같은 ‘맞선’을 하명 받는다. 그리고 상대측 남성에게 대해서 아키코에게 다음과 같이 전달된다.

친구는 모 자동차 공장 기사라는 것, 아키코보다 6살 연상인 28세라는 것, 고향이 규슈의 후쿠오카이고 차남이라는 것. 도쿄에서는 여동생과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다.³⁵⁾ (「気づかざりき」, p.10)

아키코는 야마모토에게 맞선 상대의 정보로서 직업은 “자동차 공장의 기사”이고 출신지는 “후쿠오카”이며 도쿄에서는 여동생과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상대가 현역군인이라는 사실은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드디어 맞선을 보게 된다. 아키코는 전쟁 중이라는 분위기에 맞추어 “평상시와 다른없는 복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야마모토가 알려준 약속 장소로 나간다. 약속 장소인 식당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간 아키코는 드디어 맞선 상대와 대면하게 된다.

남자답다, 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지금 아키코가 소개받은 남자는 그런 믿음직스러움이 있었다. 남자답다 라고 해도 영화 등에서 보는 남자다음과는 달랐다.³⁶⁾ (「気づかざりき」, p.37)

33) 전경옥 외3인(2004), 앞의 저서, p.119

34) 이정민(2002),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일상의 통제, 『東方学志』, p.873

35) その友達といふのは、ある自動車工場の技師であることや、昭子より六つ年上の二十八歳であることや、郷里が九州の福岡であることや、二男だということや、東京では妹と二人で暮らしてゐるといふことなど聞いてしまった。

36) 男らしい、といふような言葉は月並みだけど、今昭子に引き合わせられた男は、さういふ頼もしさがあつた。男らしい、と言っても、映画などで見る男らしさとはちがふ。

아키코는 “머리를 삭발한 하기와라”라는 남자를 소개 받는다. 그러나 이 장면은 어떤 일인지 그녀가 그의 “삭발”은 문제 삼지 않고 “남자다움”에만 관심을 갖는 등 소설 상 뭔가 어색한 전개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다.

「気づかざりき」의 연애 구도 또한 「幻の兵士」와 동일하다. 그가 군인인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던 야마모토의 의도 또한 어쩌면 이러한 연애 구도를 준비하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즉 아키코가 하기와라를 만나 첫눈에 반해 버린다면 이후에는 그가 군인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무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역시 연애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셈이다. 야마모토의 예측대로 아키코는 나중에야 그가 군인인 것,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결혼을 위한 일시 귀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사실에 아키코는 일시적으로는 쇼크를 받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는다. 그런 그녀의 일련의 모습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야마모토가 이번에는 하기와라의 귀대 소식을 던지시 흘린다.

아키코는 그 날 일하는 사이에도 몇 번이고 왈각 눈물이 나올 뻔 했다. 하지만, 오늘 밤 전송을 나가는 건 둘째 치고 하기와라와 다시 한 번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그녀의 눈은 젖은 듯 빛났다.³⁷⁾ (「気づかざりき」, p.138)

아키코는 야마모토의 통지에 “나 전송하러 나갈까 봐.”하고 강한 의지를 보인다. 역시 그녀는 하기와라를 단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은 젖은 듯 빛났다. 그러나 그녀의 전송 계획은 공교롭게도 언니의 출산과 겹쳐 실패하고 만다. 언니의 출산을 지켜본 후 서둘러 역으로 나갔지만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고 전송하고 돌아오는 야마모토와 여동생을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설정은 아키코의 하기와라에 대한 그리움을 가일층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하기와라로부터 야마모토에게 편지가 온다. 편지에는 아키코에 대한 안부인사도 들어있었다. 야마모토에게 편지를 건네받아 읽은 아키코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다 우연히 하기와라를 닮은 사람을 발견하고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한다.

마음이 두근두근 안정이 안 되어, 만약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기와라였다면 그대로 어디까지나 따라 가지 않았을까 하고 자신의 행동에 전혀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완전 개방된 마음이었다. 아키코는 달콤하고 멋진 눈물어린 눈으로 해자 주변의 버드나무를 쳐다보다 버스 창 밖 스치는 바람에 뺨을 내밀며 어느새 자신은 하기와라에 대해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것일까 하고 놀라움을 금

37) 昭子はその日、仕事の間でも、何度か、ふっと泣けさうになった。が、今夜、見送りに立つとはいへ、萩原にもう一度逢へるか、と思ふと、胸にふくれ上ってくるものがあって、彼女のまなざしは濡れたやうになって光ってゐた。

치 못했다. 38) (「気づかざりき」, pp.209~210)

아키코는 비록 하기와라를 닮은 타인이기는 했지만 그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기와라의 환영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이대로 어디까지나 그를 따라갈 수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리고 눈물어린 눈으로 ‘해자 주변의 버드나무’에 시선을 던진다. 이 해자 주변의 버드나무는 소설 서두에도 묘사되고 있어 마치 전장에 나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하기와라가 해자이고, 그 주변에 심어진 ‘녹색 버드나무’는 그를 내조하는 아키코를 표상하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병사 하기와라에 대한 아키코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를 따라 어디라도 가겠다는 속마음을 내보인 그녀인 만큼, 다음은 결혼이라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소설에는 아키코의 언니인 마사코라는 또 한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는 이미 결혼해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사내아이를 혼자서 기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해 소설 중반부에 여자 아이를 출산한다. 이처럼 마사코의 삶은 당시 후방의 여성들에게 올바른 후방 여자의 삶의 표본으로써 제시된다. 아키코도 이러한 언니의 모성에 강한 삶을 ‘훌륭하다’며 감탄한다. 이러한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키코의 장래도 역시 강한 모성이 기대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날 이러한 페미니즘의 공동체 관을 우에노(2006)는 ‘연애 이데올로기는 개인주의의 한 형태이다. 페미니즘의 공동체주의판인 모성주의와 개인주의는 원칙적으로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성주의를 기초로 하는 모자관계란 결코 대등한 개인 대 개인 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성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상호의존, 배려, 관심, 수용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모성주의적 페미니즘이란, 그 자체가 집단 지향적인 일본 사회가 낳은 페미니스트관 일본주의’³⁹⁾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1911년 『靑鞆』 및 『婦人公論』을 무대로 모성 보호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이 야기되었을 때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총력전 체제에 돌입하자 여성의 전쟁 참가를 ‘분리형’인가 ‘참가형’인가를 놓고 대논쟁을 벌였다. 결국 ‘분리형’이 채택되어 국가의 후방에서는 ‘다산’과 ‘근로’의 역할이 부과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30년대의 과학적 모성론은 전시체제에 돌입함

38) 胸の底がそはそはと落ちつかず、もしもそこにいる人が本当の萩原だったら、そのままどこまでもついて行ってしまふのではないか、といふやうな自分の行為に全然自信の持てない、そんな開けっぴろげな心持だった。昭子は、とろっと甘い、素的な、うるんだ眼なざしを壕端の柳にそらして、吹きすぎる窓の風に頬をさらしながら、いつの間には自分は、萩原に対してそんな感情になってゐたのか、と、びっくりしてゐた。

39) 上野千鶴子(2006), 앞의 저서, pp.116~117

에 따라 다산 정책으로 전환되다가, 전시체제 강화에 따라 군국의 어머니 혹은 황군의 어머니로 변모되어 칭송되었다.

「氣づかざりき」 또한 1941년 1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인구정책확립요강에 의한 국책결혼 선전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여성 보국의 길, 결혼 보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시 귀국이 허락된 하기와라와 아키코의 러브스토리가 베이스가 된 소설임을 알 수 있었다.

5. 나오며

이상 1940년대의 전시기에 쓰인 소설 「幻の兵士」와 「氣づかざりき」를 통해 한일 양국의 여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출정 병사와의 연애나 결혼을 결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 병사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 힘으로 일본에 동화해 가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두 작품에는 동일하게 여성 작가의 전략으로 전쟁의 피해자인 <여자들>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幻の兵士」에서는 서리를 뒤집어 쓴 ‘애처로운 꽃 들국화’를 조선의 메타포로 표상하였으며, 이 전략을 「野菊抄」에서도 다시 거론함으로써 작가의 민족을 생각하는 자세는 관찰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작품 안에 <挺身>이나 <愛国班>등을 묘사해 <역사적 증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런 구도가 ‘보편적 응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싶다. 「氣づかざりき」에서도 정부요원 야마모토에 의한 결혼명령이 “성실”, “영리함”, “상냥함”이라는 세 항목에 합격한 ‘현대여성’ 아키코에게 계획적으로 내려진 소설이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여성 작가에 의해 쓰인 소설이라고 하여도, 식민자와 피식민자라고 하는 입장차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幻の兵士」에서는 ‘나무들이 색도 향기도 퇴색한 가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氣づかざりき」에서는 ‘버드나무의 녹색이 싱그러운 초여름’이라는 설정이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작가들의 소설이야말로 전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감성의 레벨까지 재편성되었던 국민의 실태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일반 서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국가 체제를 받아들여 갔는지, 전체주의가 어떻게 국민에 대해 기능하고 침투해 갔는지를 매우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문제, 즉 연애나 결혼을 통해 두 소설은 분명하게 그려내었다.

【参考文献】

- 모운숙(1942), 「여성도 전사다」, 『三千里』, p.100
전경옥외 3인 공저 (2004), 『한국여성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p.121~125,128
이상경(2003), 「식민지 여성과 민족의 문제—일제 파시즘의 최정희와 임순득」, 『실천문학』, p.56
이정민(2002),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일상의 통제」, 『東方学志』, p.873
高橋哲哉(2005), 이목 역(2008),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p.258
長谷川啓(2000), 「戦争と女性」, 『昭和文学研究』, p.162
岩淵宏子(2005), 「昭和初年代から敗戦までの女性文学」, 『日本女性文学史』, ミネルヴァ書房, pp.176~177
河かおる(2001), 「総力戦下の朝鮮女性」, 『歴史論評』, 校倉書房, p.612
小林恵美子(2003), 「『気づかざりき』-生贖にされる<女たち>-」, 『日本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第9号』, p.42
上野千鶴子(2006), 『女の快樂』, 勁草出版社, pp.7~8
上野千鶴子(2006), 『女という快樂』, 勁草書房, pp.3~6
吉本隆明(1968), 『共同幻想論』, 河出書房, p.100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2008.6.30

要 旨

文学者たちが自由にものを書けない1940年代に発表された、チェ・ゾンヒの「幻の兵士」と佐多稲子の「気づかざりき」には、国家より呼びかけられた女性たちの'応答'が描かれている。「幻の兵士」の英順は日本兵の山本に恋をし、「気づかざりき」の昭子は見合い相手の現役兵に恋をする。こうして作品の根底には、ロマンチック・ラブが複線として敷かれている。女性たちの恋の相手である二人の兵士はすでに、'国家'のために命を捧げる覚悟の人たちである。そのため、彼らは恋人より国家が最優先で、恋愛は二の次なのである。しかし二人の女性は、真のロマンチック・ラブを実行しているため、彼らが生きて帰ってくることを望む。このような仕組みを細かく読み取っていかないと、表面上の内容だけでは、あたかも戦争に協力している作品として読んでしまいがちである。1940年代に発表されたチョ・ゾンヒの「幻の兵士」と佐多稲子の「気づかざりき」からは、当時の文学者たちが避けて通れない苦渋に満ちた'ある選択'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キーワード： ロマンチック・ラブ、対幻想、共同幻想、
呼びかけ、応答、普遍的選択

투 고 : 2009. 2. 28
1차 심사 : 2009. 3. 14
2차 심사 : 2009. 3. 28